



정찬주의 아쇼카대왕 유적기행 (17)

부처님, 도리천 설법 후 상갓사에 오셨네

불교는 마우리아왕조에 이어 굽타왕조, 그리고 606년부터 41년간 북인도를 통일하여 지배한 하르샤왕조까지가 전성기였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정설이다. 특히 하르샤왕 때 나란다대학은 크게 번창하였는데, 이는 하르샤왕이 불법에 귀의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르샤왕은 '나는 나란다대학의 종이다'라고 고까지 말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하르샤왕은 5천의 코끼리 부대, 2만의 기마군단, 5만의 보병을 보유한 강력한 왕으로 수도를 카나우즈(Kannau)로 삼았는데, 그러한 연유로 마우리아왕조와 굽타왕조 때까지 번성했던 도시 삿팔리뿌트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장은 나란다대학에 5년 간 수학하고 하르샤왕의 초청으로 카나우즈로 가서 왕과 왕족들에게 설법했다고 전해진다.

답사일행은 하르샤왕조의 수도 카나우즈를 둘러 그곳에서 북서쪽 80km, 파크나(Pakna)역에서 11km쯤 떨어진 상갓사로 가고 있는 중이다. 다 알다시피 상갓사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3개월 동안 〈화엄경〉 천궁계품을 마야부인과 천인들에게 설하시고 내려오신 곳이다.

불교는 신들이 부처님을 떠받든다

부처님이 도리천에 오를 곳은 이미 기원전사편 천불화현탑을 답사하면서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님이 왜 도리천으로 오르려고 했는지 경전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경전은 제석천의 간청에 의해 도리천에 올랐다고 하고 있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은 반드시 다섯 가지 큰일은 위함이니, 첫째는 법을 설하여 사람과 천인을 교화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교화하는 것이요, 셋째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아직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를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보살에게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그런데 부처님 어머니께서 도리천에 계시어 설법을 듣기를 늘 기다리시는데 어찌 부처님께서 이 염부제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부디 도리천에

오르시어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부처님은 도리천에 올라 선법강당(善法講堂)에서 3개월 동안 머무시며 마야부인과 천인들을 법을 설하시다가 목련존자의 청에 의해 상갓사로 내려온다. 부처님이 상갓사로 내려오는 광경은 법현의 〈불국기〉에 나와 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부터 동쪽을 향해 내려오셨다. 부처님은 신족통으로 3도(道) 보계(寶階)를 만들어 가운데 철보의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범천왕은 백은(白銀)의 계단을 만들어 우측에서 흰 불자(佛子)를 손에 쥐고 내려왔으며 제석천은紫金(紫金; 수정)의 계단을 만들어 좌측에서 철보의 일산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든 하늘의 천신들은 무수히 부처님을 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과 범천왕과 제석천이 딛는 계단에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은 철보와 백은과 수정의 가치로 나누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범천왕은 부처님의 불자를 들고서 시봉하고 있고, 제석천은 부처님을 위해 일산을 들고서 시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와 묘사 속에서 나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놀란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사람이 신을 떠받들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불교에서는 신들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 것이다.

목련은 신통 제일, 사리불은 지혜 제일

상갓사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들판 가운데 난 도로로 버스가 진입하자마자 먼지가 달려들어 창을 꼭 닫고 만다. 시골의 소도시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버스는 어느 새 파크나의 좁은 시장통 거리를 달리고 있다. 버스가 멈추자 일행 중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 망고와 석류를 한 바스 사온다. 일행은 상갓사에 있는 아쇼카왕 석주를 보러 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석가족 마을을 들르기로 한 것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부처님은 왜 상갓사로 내려왔을까? 포살라 군대가 까빨라성을 함락했을 때 석가족 일부는 네팔 쪽으로 이동하고, 또 일부는 상갓사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까빨라성의 멸망과 부처님의 상갓사 인연 사이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부처님



삼계보도를 형상화한 상갓사의 언덕. 부처님은 이곳에 내려와 '선정을 추구하는 현명한 이는 욕망을 벗어나는 적정을 즐긴다'는 요지의 설법을 하셨다.



상갓사 아쇼카왕 석주. 코끼리 형상에 연꽃 문양 등이 조각돼 있다.

'욕망을 벗어난 적정' 설법 "그같은 설법 들은 일 없네" 상갓사, 석가족 후에 살아 부처님 향한 열정에 감동

의 상갓사 인연은 부처님 성도 7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까빨라성 멸망은 부처님 성도 42년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훗날 석가족이 상갓사로 이동해 올 것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그랬는지 모른다. 아무튼 도리천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목련존자에게 말한다.

"대중이 수행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오. 목련이여, 대중을 교화하기 힘들지는 않는가. 대중이 서로 다투지는 않는가. 외도들이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는가."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모든 우바새와 우바이들이 부처님을 손꼽아 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뿔을 자른 소처럼 운유한 그들에게 외도의 소란과 비방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리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존이시여, 사리불은 새로 출가한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상갓사에서 안거하고 있습니다."

"전하시오. 이레 뒤에 상갓사로 내려가겠소."

부처님이 상갓사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아누룻다였다. 실명한 아누룻다에게 부처님의 소식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다. 부처님은 상갓사로 내려와 '선정을 추구하는 현

명한 이는 욕망을 벗어나는 적정을 즐긴다'는 요지의 설법을 하셨는데, 수많은 환영 인과 속에서 사리불이 가장 먼저 인사하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목련이 신통 제일이고, 아누룻다는 천안 제일이고, 뽀나는 설법 제일인데 대중이 사리불의 뛰어난 성품을 잘 모르는구나.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라고 대중에게 알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참고로 사리불이 상갓사에서 들은 부처님의 설법은 〈사리뵈따의 경〉에 담겨 있다. 첫 부분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술천에서 무리의 지도자로 오신 스승,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는 일찍이 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석가족 후예들이 사는 상갓사

이윽고 버스가 아쇼카왕 석주 보호각 앞에 섰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먼저 나타난다. 멍뭉거리는 어른들도 보인다. 저들 중에는 석가족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행은 코끼리상과 동강 난 석주를 보고는 고개를 흔든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조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높이 70여 척의 아쇼카왕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위에는 사자의 머리가 놓여 있고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 그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현장이 코끼리를 사자로 잘못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란 표현은 맞다. 실제로 보니 연꽃 문양과 용과 꽃 등이 조각돼 있는 것이다. 일행은 3계보도를 형상화한 것 같은 작은 언덕을 오른다. 올라가 보니 조그만 한두사원이 있고 높은 사투가 사원을 지키고 있다. 작은 언덕이지만 상갓사의 넓은 들판이 한눈에 든다. 일행이 언덕 위에서 바람을 쐬며 서성이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올라온다. 일행과 사전에 연락이 된 석가족 스님이다. 나는

스님과 명함을 주고받는다. 스님의 이름은 담마팔(Dhammapal)이고, 소임은 사까무니사원의 주지스님이다. 명함에 박사 학위가 표시된 것을 보니 학승인 모양이다.

언덕을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쇼카왕 석주 건너편에 웅성거리고 있다. 일행은 버스에 다시 승차하여 담마팔 스님이 안내하는 대로 가까운 사까무니사원으로 이동한다.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지은 사까무니사원에는 벌써 석가족 마을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일행은 사까무니사원을 참배하고 나와 석가족 마을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는다. 부처님의 후예들이 어선지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다. 52세 된 조게스워르 싱(Gogeswar sengh) 씨가 마을 이장인데 얼굴이 후덕하게 생겼다. 일행은 내친 김에 이장을 따라서 석가족이 모여 사는 농촌마을인 자스라즈푸르(Jasrajpur)로 가본다.

마을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진심으로 맞아준다. 여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을 고샅길을 쓸고 있다. 우리도 예전에 반가운 손님을 맞을 때는 그랬던 기억이 난다. 마을 어른들 모두가 석가족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젊은이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20세라는 비나(Veena)는 찬불가 C.D를 내게 선물한다. 자신이 부르고 녹음한 찬불가란다. 젊은 청년은 자신을 격려했던 발행하는 불교잡지 기자라고 소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잡지에 소개하고, 또 노래로 전파하는 석가족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일행 모두가 감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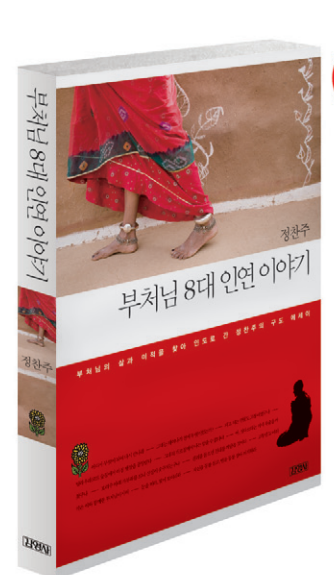
2천 5백여 년 전,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상갓사로 내려오신 내밀한 뜻이 바로 소 시절 인연을 만나 개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글=정찬주 · 사진=이일선



석가족 마을에 있는 사까무니 사원.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이 석가족의 후예라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찬주
284쪽 | 15,000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스승들이 사라진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장군 죽비로 첫 마음을 일깨우는 구도 에세이! 롬비니 탄생부터 장엄한 열반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8대 장면들로 만나다! 누구나 부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아는 이는 드물다.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온 작가 정찬주가 '팔상도'에 나타난 여덟 가지 대사건들을 따라 인도와 네 팔 전역을 순례한 불교 에세이다. 지금 인도인들의 생의 풍경에 부처님의 생애를 겹쳐 보이면서 그분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와 종교적 방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오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가신 희생의 삶을 통해 참된 종교인이 드문 이 세상에 커다란 울림을 전한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필연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팔상도가 전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전생애 모든 수행을 이루었기에 탄생할 때 "하늘 위아래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오직 중생제도를 위해 태어났기에 "마땅히 삼계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원력의 외침을 전할 수 있었다. 저자는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 부처님이 살의 고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번민과 고뇌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었는지를 웅성깊게 성찰하면서 인과의 법칙 아래 부처님의 생애를 특유의 명징한 언어로 풀어낸다.

김영사
TEL: 031955-2200 www.gimyoung.com
불교·종교·인문·역사